

2026 경기아트센터 신년음악회

2025년 1월 2일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있음 ■ 쪽수 : 4

언론담당

사업담당

사진자료

경기아트센터, 2026년 새해맞이 밝고 희망찬 클래식 선율 선사

- ◆ 김선욱이 지휘하는 경기필하모닉, 피아니스트 선우예권과 1년 만에 호흡
- ◆ 널리 사랑받는 명곡,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 선사
- ◆ 마에스트로 리카르도 무티가 극찬한, 경기필의 차이콥스키 교향곡 5번으로 감동

경기아트센터(사장 김상회)가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여는 <2026 경기아트센터 신년음악회>를 1월 10일(토) 오후 5시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선보인다. 지휘자 겸 피아니스트 김선욱이 포디움에 서며, 2024년 송년음악회에서 경기필과 차이콥스키 피아노 협주곡 1번을 협연한 피아니스트 선우예권과 다시금 호흡을 맞춘다.

이탈리아 작곡가 레스피기가 편곡한 바흐의 ‘세 개의 코랄 전주곡’으로 공연의 막이 오른다. 바흐의 종교적이고 경건한 오르간 선율을 레스피기 특유의 화려하고 드라마틱한 관현악 기법으로 풀어내어, 웅장함과 아름다움을 극대화한 작품이다.

피아니스트 선우예권은 2017년 제15회 반 클라이번 국제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을 차지했다. 2015년 인터내셔널 저먼 피아노 어워드, 2014년 방동 프라이즈(베르비에 콩쿠르) 한국인 최초 1위 수상 등 무려 8회에 달하는 국제 콩쿠르 입상으로, 한국인 피아니스트 중 국제 콩쿠르 최다 우승 기록을 세우며 탁월한 실력을 입증했다. 뉴욕 필하모닉, 뮌헨 필하모닉 등 세계 유수 오케스트라와의 협연, 카네기 홀, 베를린 필하모니 홀 등 유명 공연장 무대에 오르는 등 시대를 대표하는 음악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공연에서 선우예권은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을 연주한다.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피아노 협주곡 중 하나인 이 작품은 서정적이고 감상적인 선율, 화려한 기교와 거대한 스케일을 자랑하는 대곡으로, 교향곡 1번의 흑풍으로 우울증에 시달리던 라흐마니노프가 자신감을 회복하고 작곡한 걸작이다. 1악장 서두의 무겁고 낮은 화음과 고뇌에 찬 주제에 이어지는 2악장의 아름답고 몽환적인 분위기, 역동적이고 박진감 넘치는 3악장의 피날레로 마무리된다.

2부에서는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5번이 연주된다. 교향곡 6번 ‘비창’과 함께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중 가장 널리 연주되는 곡이다. 1악장과 2악장에서는 다소 어두운 정서가 표출되고, 3악장에 이르러 리드미컬한 왈츠 선율로 전환되며 마지막 4악장에서 희망과 생기를 담은 선율로 마무리된다. ‘어둠’에서 출발해 ‘승리’로 나아가는 전통적인 교향곡의 서사를

따르지만, 엄격한 형식과 구조보다는 다채로운 감성과 자유분방한 에너지, 극적인 강렬함과 민요적인 천진함, 낭만적인 서정성 등이 어우러진 작품이다.

또한, 이 작품은 경기필이 자랑하는 대표 레퍼토리아이기도 하다. 2015년 한국 오케스트라 최초로 독일 베를린 필하모니 홀 무대에 섰을 당시 성시연 예술단장의 지휘로 연주해 호평을 받았고, 2016년에는 세계적인 지휘자 리카르도 무티가 이 곡으로 경기필을 지휘하며 ‘지휘자의 요구에 민첩하게 반응하는 오케스트라’라고 극찬했다. 2023년에는 지휘자 김선욱이 객원 지휘하며 경기필과 첫 만남을 가졌다.

경기아트센터 관계자는 “김선욱과 선우예권, 두 젊은 음악가가 빛어낼 호흡을 기대해 달라”라며, “클래식 애호가는 물론 클래식을 처음 감상하는 관객들에게도 신년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좋은 공연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티켓가격은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이며, 경기도 거주 70세 이상, 장애인, 다자녀가정, 임산부는 1만원에 구입 가능하다. 7세 이상(2019년 공연일 이전 출생자) 관람 가능하며, 경기아트센터 홈페이지와 NOL 티켓에서 예매할 수 있다.

■ 공연개요

- 일 시: 2026. 1. 10.(토) 17:00 (1일, 1회)
- 장 소: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 출 연: 지휘 김선욱, 협연 선우예권(피아노), 연주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 공연시간: 약 115분(인터미션 15분 포함)
- 티켓가격: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 만원의행복석 1만원
- 관람연령: 7세 이상(2019년 포함 이전 출생자)
- 예 매 처: NOL 티켓, 경기아트센터 홈페이지
- 공연문의: 경기아트센터 공연전시팀(031-230-3267)

■ 프로그램

[1부]

바흐/레스피기, 세 개의 코랄 전주곡, P.167

J. S. Bach / O. Respighi, Three Chorale Preludes, P.167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 c단조, Op.18

S. Rachmaninoff, Piano Concerto No.2 in c minor, Op.18

[2부]

차이콥스키, 교향곡 5번 e단조, Op.64

P. I. Tchaikovsky, Symphony No.5 in e minor, Op.64

■ 출연진 프로필

지휘 김선욱

2006년, 만 18세의 나이로 권위 있는 리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한 이후, 김선욱은 동세대 최고의 피아니스트로 자리매김하였다. 베를린 필하모닉,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로열 콘세르트허바우 오케스트라, 드레스덴 슈타츠키펠레, 시카고 심포니, NHK 심포니 등 세계 정상급 오케스트라의 정기 연주회에서 협연하며 국제적인 명성을 쌓았다. 피아니스트로서의 활동과 더불어 지휘자로서도 빠르게 주목을 받고 있으며, 객원 지휘자로 여러 오케스트라와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다.

솔리스트로서는 다니엘 하딩, 파보 예르비, 정명훈, 마렉 야노프스키, 마크 엘더, 야쿠프 흐루샤 등 세계적인 지휘자들과 호흡을 맞추어 왔다. 최근 주요 무대에는 유럽 체임버 오케스트라와 함께한 유럽 및 한국 투어가 포함되며, 베토벤 협주곡 연주와 지휘를 병행하는 형태로 선보였다. 이 투어는 롯데콘서트홀, 베를린 필하모니, 리에주 필하모니 홀, 툴루즈 오 그랭, 런던 바비칸에서 이어졌다. 협연 무대 중에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마이클 킬슨 토머스),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마티아스 핀처), 네덜란드 방송 필하모닉(카리나 카넬라키스)과의 협연도 있었다. 또한, 2025년 11월에는 베를린 필하모닉의 한국 투어에서 키릴 페트렌코의 지휘 아래 다시 한 번 협연 무대를 가졌다.

객원 지휘자로는 서울시향과 정기적으로 협업하며 슈트라우스의 「죽음과 변용」, 「장미의 기사」, 베토벤 교향곡 제9번 등 폭넓은 레퍼토리를 지휘하였다. 또한 이스라엘 필하모닉과의 성공적인 지휘 데뷔를 통해 2026년 4월에는 피아니스트와 지휘자로서 동시에 무대에 설 예정이며, 아이슬란드 심포니와도 데뷔하였다. 본머스 심포니 오케스트라와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여러 차례 지휘 무대에 섰으며, 2025/26 시즌에는 스트라빈스키, 모차르트, 베토벤의 작품을 지휘할 예정이다. 앞으로 노르웨이 방송 오케스트라, 에네스쿠 필하모닉, 타이베이 심포니, 밀라노 시립 교향악단과의 객원지휘도 계획되어 있다.

리사이틀 무대에서는 위그모어 홀, 파리 필하모니, 오사카 심포니홀, 예술의전당 등 세계 주요 무대에 올랐으며,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 주미 강, 재닌 안센과도 꾸준히 호흡을 맞추고 있다.

음반으로는 정명훈의 지휘로 서울시향(도이치 그라모폰), 드레스덴 슈타츠키펠레 (Accentus)와 함께한 협주곡 음반이 있으며, 2023년에는 베를린 필하모닉이 작곡가 진은숙과의 20년간의 협업을 기념한 박스 세트를 발매하였다. 이 가운데 피아노 협주곡은 김선욱이 연주하고 사카리 오라모가 지휘하였다.

1988년 서울에서 태어난 그는 런던 왕립음악원에서 지휘 석사 과정을 마쳤으며, 2019년에는 왕립음악원 펠로우(FRAM)로 선정되었다.

피아노 선우예권

2017년 제15회 반 클라이번 국제 콩쿠르 금메달리스트인 선우예권은 “변함없고 한결같이 우수한”(인터내셔널 피아노),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천둥과 같은 종합적인 테크닉을 구사하는 피아니스트”(시카고 트리뷴) 라는 찬사를 받으며 한국인 최초로 우승을 차지했다. 파워풀함과 비르투오소적인 면모를 보이는 동시에 “음악의 진실되고 순수한 아름다움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말하는 그는 국내외에서 가장 주목받으며 시대를 대표하는 음악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뉴욕 필하모닉, 워싱턴 챔버 오케스트라, 덴마크 로열 오케스트라, 볼티모어 심포니 오케스트라, 휴스턴 심포니, 벨기에 국립 오케스트라, 뮌헨 필하모닉, 로열 스코티시 내셔널 오케스트라, 포트워스 심포니, 몬트리올 심포니, 바르샤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드 챔버 드 파리, 홍콩 필하모닉 등 세계 유수의 오케스트라와 협연했으며, 베를린 필하모니홀, 뉴욕 카네기홀, 런던 위그모어홀,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함부르크 엘브 필하모니, 파리 살 코르토 등 유명 공연장 무대에 올랐다. 베르비에 페스티벌, 아스펜 페스티벌, 그슈타드 메뉴힌 페스티벌, 팔레르모 페스티벌 등의 세계적인 음악축제에 초청받아 연주했다.

뉴욕 필하모닉 스트링 콰르텟과의 국내 투어를 비롯하여 플루티스트 에마누엘 파위, 바이올리니스트 레이 첸, 벤자민 베일만, 세바스찬 보렌, 토비아스 펠트만, 첼리스트 안드레이 이오니처, 이상 엔더스, 게리 호프만, 피아니스트 랑랑, 앤-마리 맥더모트, 성악가 연광철, 벨체아 콰르텟, 예루살렘 콰르텟, 브렌타노 콰르텟 등과 협연하며 실내악 주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기도 했다.

2019년 '나의 클라라', 2021년 '모차르트'에 이어 2023년 '라흐마니노프, 리플렉션'으로 전국 11개 도시에서 리사이틀 투어를 가지며 명실상부 한국의 대표 클래식 스타의 저력을 드러냈다.

반 클라이번 국제 콩쿠르 외에도 2015년 인터내셔널 저먼 피아노 어워드, 2014년 방돔 프라이즈(베르비에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 1위 수상으로 음악계를 놀라게 했으며 2013년 샌다이 음악 콩쿠르 1위, 2012년 윌리엄 카펠 국제 피아노 콩쿠르 1위, 플로리다 국제 피아노 콩쿠르 1위 등 무려 8회에 달하는 국제 콩쿠르 입상으로 한국인 피아니스트 최다 국제 콩쿠르 우승 기록을 가지고 있다.

2017년 반 클라이번 우승 2주 만에 데카 골드에서 라벨의 '라 발스',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소나타 2번 등을 담은 앨범 [클라이번 골드 2017]을 출시했고, 이 앨범은 빌보드 클래식 앨범 차트 1위에 올랐다. 2020년 데카 레이블에서 첫 스튜디오 앨범 [모차르트]를 발매했으며 2023년 데카 레이블의 두 번째 스튜디오 앨범 [라흐마니노프, 리플렉션]을 발매했다. 한국 대표 피아니스트로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홍보대사, 한·독 수교 140주년 기념 홍보대사, 2025년 서울시 홍보대사로 위촉되었다.